

사회문화적 전망과 개혁주의 관점의 대응

이정숙 | 박사 · 이화여대 교회사

진정한 변화의 삶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방식 전환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교회의 제도와 행정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권세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02년을 전망하는 것은 21세기를 전망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류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20세기를 반성하고 21세기를 예견하는 많은 작업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세계성(globality)의 심화”라는 원심적 경향과 “국지성(locality) 혹은 지역성(religionality)의 유지”라는 구심적 경향이였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그 내재적 성격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어떻게 화해시키고 창조적으로 공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21세기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헌팅턴은 21세기에 있을 ‘문명의 충돌’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지구 평화와 연결시키고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이 인류 공영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출발하는 첫 해에 우리는 사상최대의 테러를 경험하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성전이 선포되는 등 패권주의로 불려일으키는 국제정치의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세계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2002년을 맞게 될 것이다. 악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미국이나 텔레반정권의 초강경노선은 난민문제와 인종갈등, 종교대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인류파멸의 마지막 선택일 것으로 상상되었던 생화학전위 위기가 세계전역을 비상대기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이 전쟁의 불똥이 남북한관계에까지 튀고 있으니 우리가 준비하며 그리던 21세기의 평화와 공존의 삶에 대한 기대는 서두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셈이다. 2002년 사회문화적 전망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중인 전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중심주제를 나름대로 정의해 보고 2002년 사회문화적 전망을 한 뒤 개혁주의적 대응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기독교교육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중심주제 혹은 목표의 원형은 칼빈의 제네바 사역에서 읽을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 시에 재입국(1541)하면서 도시 전체를 개신교적 원리(Protestant principles)에 의해 재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제네바 시는 개신교로 전환하였지만 개신교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못하였다. 도시는 높은 범죄율과 미혼모들과 윤락여성들로 넘쳐 도덕적으로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암울한 상태였다. 칼빈은 성도들을 훈련(church discipline)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다고 판단하여 재입국과 함께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를 설립하고 제네바 시와 그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개신교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점에서 컨시스토리는 단순히 심리법정이나 상담기관을 넘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R.M. Kingdon).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리공부(학습)나 설교를 통하여 평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였고, 또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 1559)를 설립하여 전문 신학자와 목회자를 교육하였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에서 보여진 두 가지 중요한 관심은 “영혼의 치유(the cure of souls)와 일상의 훈련(the discipline of daily life)” 이었다.

이 두 가지 관심은 칼빈의 제네바 시 교육의 목표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 또 공동체 속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결정하는 개개인의 정서와 의지, 몸의 습관을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칼빈이 활동했던 16세기 중엽 역시 새로운 유럽에서 로마천주교의 세력을 최소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하고 인문주의 르네상스 정신에 힘입은 젊은 신진학자들에 의해 사상적 변혁이 시도되던 시기였다. 여러 가지 난관을 겪었지만 칼빈은 분명한 목회관과 시당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학교”와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것이 유럽의 타 지역 개혁에 선례가 되고 큰 자극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간략히 칼빈의 제네바 사역에 나타난 영혼의 치유와 일상의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배 중시 (2) 성례전 교육 (세례교육/ 성만찬 준비) - 컨시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권징과 회복 (3) 심방, 상담을 통한 개인적 접촉 - 심방제도(1557)

21세기 한국사회문화 전망

21세기 한국의 환경 21세기의 세계환경은 크게 정치경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 경제적 환경은 다극화 현상으로 서구 문명과 비서구문명(아슬람, 힌두, 중

화, 라틴아메리카, 일본, 러시아, 아프리카 등)간의 대립 - 미국의 패권주의/유럽연합/이슬람국가의 확장 / 대중국과 공영권의 급성장과 들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과 생산적 복지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며 셋째,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은 결혼, 가족의 개념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제 주변에서 어렵잖게 보게 되듯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속에서 인내와 수고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오던 여성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1998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이혼사유의 1순위는 상담여성 5282명 중 33.6%가 호소한 남편과 시댁식구들로 받는 부당한 대우이다. 이것은 남편의 외도를 이혼사유 1순위로 내세우던 1980년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여성학자들은 이제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권위에 항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황혼이혼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싱글부모 가족', 재혼으로 결성되는 '복합가족'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사회는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바란다면 다양한 형태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상담, 협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결혼의 지속성을 돕는 상담이나 세미나 등을 보급하여 이혼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이혼 발생시는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제도화되어야겠다.

점차로 발달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적인 능력이 늘어나면서 또 독립한 싱글들을 위한 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의 등장은 결혼의 연령을 늦추거나, 미혼가정이 늘어가는 현상 역시 21세기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포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관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미 20세기에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할 것 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2000년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여성권한척도에 있어서 70개국 중에 6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Cf. 인간개발지수 31/174). 행정관리직에 속하는 여성의 비율은 4%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수준 10%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001년 여성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였다(Cf. 인간개발지수 29/146).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직업의 기회 뿐만 아니라 임금과 승진 기회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남녀불평등의 심화현상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서와 편재된 우리문화(유교문화)를 함께 들어 여성의 열등성을 주장하고 여성의 교회내 권한축소를 고착시키고 있다.

이중적 글래 속에서 이해되는 한국교회의 남녀 역할론은 여성안수문제, 여성성직자 취업문제, 교회내 여성지도력 활용 문제, 임금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고용할당제, WARC 권장사항).

일반사회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근력중심의 노동집약사회에서 정보중심의 지식사회가 되면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심의하고 최종평가한 보고서(2000)에 의하면 "계속되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남아선호사상, 호주제, 가정폭력, 성폭력, 남녀평균임금격차, 고등교육을 받는 남녀성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전통적 윤리 개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전통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윤리나 가치관 등이 더 이상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권위에 대하여 또 연장자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비판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 하기보다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성인재교육 등을 통하여 자식에게 지나치게 베풀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에 대한 관념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었다. 거기에는 유흥산업과 레저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불건전한 성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유흥업소와 의식산업의 발전은 생산적 분야의 고령화현상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현장을 등진 20대 젊은이들이 근사한 정장을 차려입고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간동아 7/29/01).

넷째, 전통종교와 가치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재해석이 활발해진다. 후기현대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고 근본적인 쾌도 수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서양이 동양의 지혜에 눈을 돌린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문명권의 패권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은 동양의 종교와 철학을 기독교를 대신할 평화와 화해의 복음으로 숭배하기도 한다. 근대화에 기치를 높이던 70년 80년대의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것을 구시대의 유물이라 규정하고 기꺼이 폐기처분할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기독교 성장에 끼친 영향이 없지는 않다.

세계화의 필요 속에 더욱 중요하게 등장한 지역적 특성 개발이라는 과제는 전통종교나 문화, 철학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다루게 되었다. 이 구도에서 종종 기독교는 외래종교로 분류되어 비/반 한국적인 정서를 배포하는 종교로, 또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교세확장에 사력을 다하는 종교로 치부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실 붕괴, 학교 붕괴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조장한다. 유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기타영역의 발달에 비해 공교육의 질과 양의 투자가 낮고 그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요소가 더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는 모든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었지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실망은 사교육의 강화와 조기유학 붐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공교육의 실패는 단순히 교육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내 자식만이라도 잘 가르쳐서 잘 살게 하겠다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실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학부모들의 실망과 무기력은 심화되어진다. 개인 차를 무시하는 현재의 평준화 공립교육은 강제된 평등주의이며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 또는 저질대량화교육을 재촉하게 되기 쉽다.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의 허술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계층이동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기위주의 교육 역시 균등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습능력의 약화가 가져올 국가경쟁력의 약화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들의 성공의식 조사에서 한국청소년들이 21세기 사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장래 목표설정 역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러한 교육현실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공교육의 실패는 권위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파급효과를 낳는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쇄 불신 반응은 결국 고급두뇌들과 신진인력들의 탈한국현상「한국의 미래가 빠져 나간다」주간한국 9/13/01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교육개혁이 요망된다.

사회문화적 전망에 대한 개혁주의 교회교육의 대응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전망은 다양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교육의 향방을 정하는 데 있어 교육담당자들이 사회문화적 조건과 도전은 어느 정도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가는 사실상 신학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복음으로서 오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각종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역사에의 개입' 과 '역사와의 거리' 라는 긴장의 역학을 발견한다. 그는 분명히 당시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안식일, 기도, 금식, 구제 등)에 비판하셨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습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어린이, 여성 등)들에 대해 도전하셨다. 그런가 하면 그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여하셨다.

칼빈은 그의 사역에서 '영혼의 치유와 일상의 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쳤다. 또한 컨시스토리와 일반심방제도를 제정하여 성도들이 말씀에 준거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제네바 시당국과의 마찰을 불사하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교회가 할 일과 세속권세가 할 일은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의 일상의 훈련을 위해서는 시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당시 제네바 시가 질서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게 된 것은 단순히 교회가 제네바인들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로마 가톨릭식의 삶에 익숙했던 16세기 제네바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었다. 칼빈은 시당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렸고 세속권세는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세속 권세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가도록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오늘 기독교교육은 말씀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를 영적으로 감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고 기도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회에 빨리 오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고, 혹은 헌금을 많이 내기 위해 조금씩 탈세를 한다면 어떤가? 진정한 변화의 삶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방식 전환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교회의 제도와 행정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권세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 의미에서 교회가 공권력에 협조하고 지역사회의 공권력이 내실화되는데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 또 국가 공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교회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있는지를 살펴 이를 관계당국에 알리는 일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구체화시키면 첫째, 영혼치유/ 일상훈련의 사역의 강화이다. 영혼치유와 일상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는 데서 시작한다. 즉 공예배의 중요성, 예배적 삶의 중요성 교육과 단계적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기초와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 그리고 가정과의 network의 중시와 부드러운 권징의 필요하다. 둘째, 사회 문화적 요건들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문제로 가족, 남녀관계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화합과 공존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고 질서와 교양에 기초한 시민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